허정무호 과제 '스피드와 위치 선정'

에콰도르 평가전 분석 결과 공수전환 때 문제점 드러내

허정무(55)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19일부터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될 소집훈련에서 '스피드와 위치 선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정무 감독은 지난 16일 파주NFC에서 오전 회복훈련을 끝내고 나서 코칭스태프 회의를 통해 30명의 예비 엔트리 가운데 4명을 추려낸 26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선수들에게 2박3일의 마지막 외박을 줬다. 덕분에 허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도 외박의 기쁨을 맛봤지만 쉴 틈은 없다.

지난 16일 오전 훈련에 앞서 김세윤 비디오 분석관은 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에콰도르와 평가전이 담긴 CD를 나눠줬다. 외박 기간에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허정무 감독은 더불어 취재진에게 에콰도르와 평가전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재소집 훈련 때부터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허 감독은 "에콰도르 대표팀도 소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최상의 전력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조직력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선수들의 가담 속도와 거꾸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뀔 때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미흡했다"며 "수비에서 치명적인 실수도 몇 차례 보였다"고 진단했다.

대표팀은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지만 공수 간격조절에 문제점을 노출했고, 효율적인 압박 수비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대표팀 선수들이 손발을 제대로 맞출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허 감독 역시 19일 시작되는 재소집 훈련에선 조직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무엇보다 상대 역습 상황에서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가담하는 속도가 아직 느릴 뿐 아니라 적절한 간격조절도 부족했다는 게 허 감독의 분석이다.

더불어 수비를 하다가 공격을 전환할 때도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적절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면서 수비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볼 배급의 속도가 느려져 역습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집훈련 때는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통해 에콰도르 평가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24일 치러질 일본과 평가전(오후 7시20분·일본 사이타마)에서 조직력을 살려가면서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붉은 악마' 그리스전 원정응원 비상

응원단 규모 70명으로 축소…1차전 35명 파견 확정

다음 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첫 원정 16강 진출의 관건이 될 그리스와 조별리그 경기에 응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스인 붉은악마는 6월 12일(이하 한국시각) 포트엘리자베스에서 열리는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 붉은악마 회원 35명이 원정 응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붉은악마 원정단은 규모가 애초 100여 명보다 축소된 70명으로 확정된 데다 조별리그 1차전을 위해 35명이 미리 출발하고 아르헨티나와 2차전, 나이지리아와 3차전에 나머지 35명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붉은악마는 앞서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에서는 조별리그 경기마다 회원 300~400명 규모의 응원단을 조직해 열띤 응원전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그리스 응원단이 규모에서 붉은악마를 압도할 이유가 없는 데다 한국과 그리스의 1차전이 이번 월드컵에서 비인기 경기로 꼽히기 때문에 '홈 효과'를 낼 여지도 있어 보인다.

40~60대 상대적 고령자로 구성된 아리랑응원단은 이번 남아공월드컵에 50명을 파견해 사물놀이를 앞세운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출정하기로 했으며 태극기 2장을 붙여서 만든 응원복 2000 벌을 특별히 제작해 응원단과 교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월드컵 우승 목마른 잉글랜드 축구팬

"우승 땐 1년간 섹스 못해도 좋다"

월드컵 축구대회 우승에 목마른 잉글랜드 팬들 가운데 12%가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1년간 섹스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

영국 일간신문 미러는 최근 영국의 음료회사 FRijj가 실시한 남아공 월드컵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18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잉글랜드 팬들의 3분의 1은 '잉글랜드가 1966년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오른다면 12개월간 집안일을 하겠다'고 응답했고 최근 영국의 한 남성 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로 선정한 셰릴 콜과 하룻밤도 '잉글랜드가 우승할 수만 있다면 거절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51%나 됐다.

10%는 '잉글랜드가 정상에 설 수 있다면 여자친구도 기쁜 마음으로 차버리겠다'고 답했고 '이탈리아 출신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면 그에게 기사 작위나 영국 시민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대표팀 비화 책으로

축구협 '승리의 함성…' 발간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어렸을 때 살을 찌우려고 개구리를 먹었고, 네덜란드에서 뛸 때는 관중의 야유 때문에 축구공이 오는 것을 겁낸 적도 있었다.

태극전사들의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소개하는 서적 '승리의 함성, 하나 된 한국'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에는 국내 축구 100년사에서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대표팀 이야기와 현재 태극전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프로필·화보 등이 실렸다.

협회는 다음 달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소장한 자료를 활용해 '생생하고 살아 숨쉬는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응원 열기를 드높이려고 책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역도 사재혁 한국신 번쩍

전국선수권 77kg급 인상

한국 남자역도의 간판 사재혁(25·강원도청)이 올해 첫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사재혁은 18일 강원 원주 엘리트체육관에서 열린 제82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77kg급 인상에서 2차 시기에 164kg을 들어 올려 자신의 한국기록 163kg을 1kg 늘렸다.

사재혁은 용상에서 세계 정상급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마지막 3차 시기는 포기했다.

사재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인상 163kg·용상 203kg을 들어올려 합계 366kg을 기록해 금메달을 땄다. 인상 한국기록은 그때 수립됐다.

사재혁은 작년 11월 고양 세계선수권대회 77kg급에서 용상 205kg을 성공해 우승하면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타이틀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한편 김민재(27·경북개발공사)도 남자 일반부 94kg급 인상에서 2차 시기 181kg, 3차 시기 183kg을 들어올려 한국기록을 두 차례 갈아치웠다. 종전 한국기록은 자신이 작년에 기록한 180kg이었다. /연합뉴스

13세 소녀 프로기사 탄생

유창혁 9단 제자 최정 양

만 13세의 국내 현역 최연소 프로기사가 탄생했다.

여자 연구생 서열 1위인 최정은 17일 성동구 홍익동 한국기원 5층 연구생실에서 벌어진 제37회 여류입단대회 입단자 결정전 3번기 제2국에서 박태희에게 백으로 150수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0으로 프로 입단을 확정지었다.

1996년 10월 생으로 충암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최정은 13세 7개월만에 입단함으로써 김기원 2단(16세 6개월)을 제치고 현역 최연소 프로기사가 됐다.

7세에 처음 바둑을 배운 최정은 2005년 유창혁 9단의 제자로 입문하여 연구생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년 6개월만에 프로 입단에 성공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정은 "입단대회 기간동안 부담이 많았는데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다"며 소녀다운 소감을 밝힌 후 "남자들과 대등한 승부를 펼쳐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입단 직전 최정과 수차례 지도대국을 했던 루이나이웨이 9단은 "수읽기가 빠르고 힘이 강한 전투형 바둑이다. 그 나이 때의 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데, 조혜연과 박지은의 뒤를 이를 재목이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역대 최연소 프로 입단 기록은 조훈현 9단의 만9세 7개월이고 여자최연소 기록은 11세 10개월의 조혜연 8단이다. /연합뉴스

김연경 日 JT에서 1년 더 뛴다

지난 시즌 일본여자배구 득점왕에 오르며 맹활약한 김연경(22)이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1년 더 뛰기로 했다.

김연경의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JT에 1년 더 임대하기로 재계약했다고 18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JT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연경이 먼저 1년간 뛰고 나서 재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경신하기로 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에도 김연경이 꼭 필요하지만 김연경이 일본에서 소속팀을 우승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테니스 윌리엄스 자매

7년만에 세계랭킹 1, 2위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와 비너스 윌리엄스(이상 미국) 자매가 7년 만에 다시 여자 프로테니스(WTA) 1 · 2위를 휩쓸었다.

WTA 사무국이 18일(한국시각) 발표한 새 랭킹에서 언니 비너스는 랭킹 포인트 6386점을 획득,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덴마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동생 서리나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1위를 지켰다.

윌리엄스 자매는 2003년 5월 이후 7년 만에 다시 세계랭킹 1위와 2위를 독식하면서 여전히 여자테니스의 최강자임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경력자포함),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체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경력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폴라리스 복합상가
분양/임대
봉선동 2만여세대 완전 중심 상권 / 최고의 투자가치
모두가 꿈꾸는 탁월한 선택,당신의선택이 당신의미래를 만듭니다.
봉선동 중심상권!! 최고의 입지!!
봉선동 폴라리스 복합상가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치가 보이는 성공사업을 약속합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하 60대, 지상 12대
1F 프리미엄 상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은행/대형음식점/패스트푸드/약국 귀금속/동물병원/핸드폰대리점/커피전문점 등
2F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병의원/한의원/치과/미용,미부관리/커피전문점/당구장
3F 밀집된 학군으로 최적의 조건형성
권/장/업/종 입시전문학원/독서실/보습학원/외국어학원/체육관/기타학원
4F 대단위 유동 인구와 소비여력의 최적화 상권
권/장/업/종 스포츠센타/패밀리레스토랑/스크린골프/헉원/기타
"프리미엄 상권의 최고장소" 폴라리스 분/양/임/대/문/의 062)674-4900